

전북은행 예대마진 1위 전북도민은 희생양?

김성수 도의원, 임시회서 지적
“전북은행 금고 운영 불균형”
“금고 평가 형평성 등 반영 필요”

도내 향토기업인 전북은행의 이자장사 논란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전북은행이 수년 간 예대마진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된 가운데 서울 등 타지역 영업망 강화를 위해 오히려 전북도민들이 희생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김성수 전북특별자치도 의원은 최근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은행이 수년 간 높은 대출금리를 토대로 예대마진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점을 올해 전북도금고 선정 평가시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를 도정에 따져 물었다.

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은 이날 제42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북도 금고 운영의 불균형 문제를 중점적으로 꼬집었다.

그는 “현재 전북도 금고는 1금고를 농협, 2금고를 전북은행이 나눠 맡고 있지만 운영 실태를 보면 오히려 2금고가 안정적 자금을 운용하며 이익을 거두고 있



김성수 도의원

다”고 전제한 뒤 “평가에서 1등을 한 은행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구조로 향후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말 기준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1금고 농협의 평균잔액(평잔)은 3천700억 원에 불과한 반면, 특별회계와 기금 등을 관리하는 2금고 전북은행의 평잔은 6천700억 원에 달했다.

이처럼 자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전북은행은 수년 간 전국 예대마진 1위를 기록했다는 것. 김 의원은 “17개 시도 가운데 1금고가 일반회계만 맡는 곳은 전북이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향후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은행의 높은 예대마진 구조 역시 금고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며 “공적자금은 공익성은 물론 균형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밝혀 향후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은행에게 공적자금 운용을 계속 맡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정철 기자

새만금공항 법정·적자 난관…전북 미래성장동력 ‘날개’ 꺾이나

‘법원 1심 취소’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트라이포트’ 핵심 인프라
지연 시 개발 전반 악영향 우려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법원의 1심 취소 판결로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선정돼 중앙정부와 전북이 함께 추진해 온 핵심 사업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 새만금 개발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

2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의 필요성은 현재 군산공항의 구조적 한계에서 출발한다. 군산공항은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과 활주로

를 공용하고 있어 미군 훈련으로 인한 잦은 결항과 연착이 발생하고 하루 왕복 5편이라는 운항편수 제한으로 도민들의 항공교통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국제선 취항이 안보상 이유로 불허되면서 전북 도민들은 동남아·중국·일본 등 출국 시 인천공항까지 3~4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국제공항이 부재한 전북은 사실상 항공교통 측면에서 ‘도서벽자’ 수준의 소외를 겪고 있는 셈이다.

이는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관점에서 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우리나라는 일본(공항 95개)에 비해 공항 인프라(국내 15개)가 크게 부족

하다. 지방 항공교통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새만금국제공항은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새만금 개발의 핵심 동력이다. 새만금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자본을 유치하려면 국제선 취항이 필수적이다. 고부가가치 물류·비즈니스 활동의 중심지 도약, 글로벌 푸드 허브 조성, 관광·MICE 산업 유치 등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해서라도 국제공항이라는 기반시설이 필요한 대목이다.

무엇보다 공항·항만·철도가 집적되는 ‘새만금 트라이포트’ 구축에서 공항은 핵심 요소다. 2036 하계올림픽 유치와 전북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필수 교통시설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

전북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지방소멸 위험 4위에 해당하는 심각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다. 특히 전주 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새만금국제공항을 통한 지방거주 국민의 삶의 질 확보와 지역산업 성장 발판 마련이 대두된다.

현재 농생명용지 내부개발, 지역간 연결도로, 새만금신항 등 새만금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국제공항 추진이 지연될 경우 기업 투자유치 어려움과 물류기반 구축 지연 등으로 새만금 사업 전반의 추진 동력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새만금국제공항은 현 정부 국정과제에 명시된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프로젝트다. 2026년 새만금 주요 사업에는 총 1조 455억 원의 국가예산이 확보됐고, 공항·철도·도로 등 SOC 예산은 요구액 전액이 반영됐다.

특히 내부개발·수목원 조성 등 기반시설도 적정 예산을 확보해 2023년 새만금 주요 SOC 예산의 78% 대거 삭감으로 지연됐던 새만금 개발 정상화의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공항 사업의 지연은 전체 새만금 개발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현재 군산공항의 한계, 새만금지역 국제 접근성 확보, 국민 이동권 보장, 전북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이라는 절박한 현실을 고려할 때 새만금국제공항은 항공교통 소외지역인 도민들의 하늘길이자 새만금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제 50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전북도는 제50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일을 맞아 노홍석 도 행정부지사, 35사단, 시군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장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9일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전북자치도>

전북자치도, 제50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개최

유공자 표창·안보교육 등 진행
민방위 정신 계승·안전 강화 다짐

전북특별자치도는 제50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일을 맞아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35사단, 시군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장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9일 ‘제50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민방위대는 1975년 “내 마을, 내 직장, 내 내가 지킨다”는 정신으로 창설되어, 국민 스스로가 국가 안보와 안전의 주체임을 보여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자율적 안전 체계의 토대를 마련한 전환점이자, 위기와 재난으로부터 공동체를 지켜내는 든든한 기반이 되어 왔다.

이번 기념행사는 ▲민방위 유공자 표창, ▲민방위 대원의 신조 낭독, ▲민방

위의 노래 제창, ▲민방위 안보 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 민방위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과 개인에게 도지사 표창 7점 및 35사단장 표창 3점이 수여되며, 그간의 노고를 기리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되었다.

민방위 유공 도지사 표창 기관은 무주군, 개인은 순창군 순창읍 지역민방위대장 정정애님 등 총 6명이 수상하였고, 제35보병사단장 표창에는 익산시 동산동 지역민방위대장 유미자님 등 총 3명이 표창을 수상하였다.

노홍석 도 행정부지사는 “민방위대는 창설 이래 국가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켜온 든든한 힘이였다”며, “헌신과 노고를 아끼지 않는 민방위 대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민방위 정신이 지역 공동체의 힘으로 이어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주 올림픽 유치 ‘빨간불’…문체부 “협의 진행 중” 해명

윤준병 “전주 계획 IOC 부적격”
문체부 “유치 협의 지속” 반박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대한체육회와 전북이 최종 작성하여 제출한 ‘전북 전주’를 중심으로 전국 10개 지자체 연대를 구성해 하계 올림픽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IOC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북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밝힌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지적하면서 “도민들께서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는 ‘하계 올림픽 유치’ 사안에 대해 전북

도와 대한체육회는 조속히 수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 위원으로 활동할 때 “문체부가 끝까지 국정과제 선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꺾지 않았다”며 “(이는)대한체육회가 문제제기와 사전협의 없이 자체 공모 절차를 통해 하계올림픽 유치도시로 선정한 ‘전북전주’가 ‘IOC 개최지 요건’과 ‘기재부 승인 요건’ 등을 지금까지도 구비하지 못한 상태임을 알게되었다”고 공개했다.

현행 ‘국제행사의 유치 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제행사 유치시에 총 사업비의 40%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이 규정

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전북전주는 올림픽 유치에 따라 총사업비의 40%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전북과 전주의 재정자립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또한 경기장 배치와 선수촌 위치, 객실 수 등 IOC 기준도 충족하지 못한다.

윤 의원이 지적한 문제는 전주 올림픽 유치를 시작하기 전인 지난해부터 전북도와 전주시 등이 검토한 문제였으며 문체부는 전주올림픽 유치 당시나 현재 모두 우호적인 것은 아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윤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문체부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문체부가 하계올림픽 유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었다는 것은 사실

이 아니고, IOC도 변경된 개최도시 선정에 따라 문체부·전북·대한체육회 실무협의를 통해 자문을 교환하고 있는 등 지속협의 단계”라고 해명했다.

다시 말해 문체부는 전주올림픽 유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고, IOC와 2036 올림픽 유치 신청에 따른 협상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무산되거나 폐기된 것이 아니라 진행형이라는 것이다.

정지권의 한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가 전주 올림픽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서고, 국가 지원을 확대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기장 건설을 최소화하고, 종목별로 분산 개최를 한다면 탈락 요건은 아니다”며 “우리와 경쟁하는 인도의 경우도 분산개최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율=김영목기자



전북 수소기업 (주)아헤스, 인도 에너지기업과 ‘맞손’

글로벌시장 진출 가속화 전환점
수전해 기술·그린수소 공동 추진
아헤스, 인도서 3,765억 수출 성과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수소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앞당기기 위해 인도의 대표 에너지기업과 손을 잡았다. 이번 협력은 전북 수소산업이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전북자치도는 29일 도내 수소전문기업 ㈜아헤스와 함께 인도의 주요 에너지기업인 GH2 Solar, KPI Green Hydrogen & Ammonia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아헤스 이종희 대표, GH2 Solar의 아누라그 자인(Anurag Jain) 대표, KPI Green Hydrogen & Ammonia의 로비 라자세카람(Robbi Rajasekharam) 사장, KP Group의 모이눌(Moinul) 사장·전임이사 등 양측 인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자치도와 참여 기업들은 ▲수전해 설비 기술 교류 ▲그린수소 분야 공동사업 추진 ▲인도 현지 시장 확대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MOU는 전북 수소산업이 단순한 지역 산업을 넘어 글로벌 차원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헤스는 알칼라인 수전해 스택 전문기업으로, 지난해 GH2 Solar와 5년간 총 3,765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최근 20억 원 규모의 실질적

전북도는 29일 도내 수소전문기업 ㈜아헤스와 함께 인도의 주요 에너지기업인 GH2 Solar, KPI Green Hydrogen & Ammonia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전북도>

성과를 거두며 인도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GH2 Solar는 태양광 EPC와 그린수소·에너지저장시스템 사업을 주력으로 하



전북도는 29일 도내 수소전문기업 ㈜아헤스와 함께 인도의 주요 에너지기업인 GH2 Solar, KPI Green Hydrogen & Ammonia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전북도>

/장정철 기자

전북 선수단, 전국기능경기대회서 40명 입상

38개 직종 104명 선수 ‘열전’
금3 銀4 銅4개 등 우수 성과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26일 광주광역시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선수단은 총 40명의 입상자를 배출,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다.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7일 간 열린 이번 대회에서 전북은 자동차 정비 등 38개 직종에 104명의 선수가 출전해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4개, 우수상 6개, 장려상 23개를 수상했다.

학교별 주요 성과로는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가 프로토타입모델링 직종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며 2년 연속 금메달을 차지했고, ▲전주공업고등학교는 자동차차체수리 직종에서 지난해 동메달 2개에 이어 올해 금메달 1개를 추가하며 기술교육의

성과를 입증했다. ▲남원제일고등학교는 요리 직종에서 금메달 1개를 획득했으며, 요리 직종에서의 금메달은 2002년 이후 23년 만에 거둔 값진 성과이다.

남원제일고 요리 직종 금메달 입상자인 강다현 선수는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이며, 이번 성과는 혼자서 아닌 모두의 노력 덕분이라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배움에 힘쓰며 정진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기능인이 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게는 시상금과 함께 메달별로 고용노동부장관상 및 한국위원회 회장상이 수여된다. 또 직종별 상위득점자에게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선발평가전 출전 자격이 부여되며, 산업기사 실기시험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장정철 기자

전북 K-POP 아카데미 ‘결실’…음원 전 세계 발매

‘동그라미’ 음원 주요 플랫폼 발매
지난8월 ‘전북 K-POP 아카데미’
9개국 20명 청소년 전원 녹음 참여

동그라미(Go beyond create harmony) 음원이 28일 정오 스포티파이, 멜론, 벅스뮤직 등 주요 플랫폼을 통해 정식 발매됐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K-컬처 허브 도약을 위해 지난 8월 운영한 ‘2025 전북 K-POP 아카데미’의 성과물이다.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부안·완주 등에서 진행된 이번 아카데미는 한국, 미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등 9개국 청소년 20명이 참가했다. 전 세계 50개국 558명이 지원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참가자들은 보컬·댄스 집중교육과 함께 전주 한옥마을, 아원고택, 부안 내소사 등 전북의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K-POP 전문 트레이너 강의와 아이돌 특강, 오디션 무대, 쇼케이스 공연을 통해 실력을 다졌다.

이번에 발매된 ‘동그라미’는 송재혁, 최한울 프로듀서가 공동 작곡·작사했으며, 아카데미 참가자 전원에게 보컬 녹음에 참여했다. 긍정과 화합을 의미하는 원(circle)을 바탕으로 전 세계 청소년의 희망과 연대 메시지를 담았다. 전북에서 처음 제작된 K-POP 아카데미 오리지널 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는 이번 음원을 공식 SNS, 각종 축제, 국제 교류 무대에서 적극 홍보하고, 전주올림픽 유치 홍보 및 문화올림픽과 결합해 전북의 브랜드 가치를 세계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내년 K-POP 아카



지난 8월 운영한 전북 K-pop 아카데미 참가자들이 녹음에 참여한 음원 ‘동그라미’가 28일 주요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에 발매됐다. <사진=전북도>

데미에서도 교육생 훈련곡으로 활용해 지속성을 확보한다.

이경영 전북자치도 문화산업과장은 “전북 K-POP 아카데미는 전통문화와 K-컬처가 융합하는 글로벌 교류의 장”

이라며 “첫 음원 ‘동그라미’ 발매를 계기로 전북이 K-콘텐츠 허브로 도약하고, 세계인이 찾는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의회, 추석 맞아 남원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온누리상품권 사용 촉진 캠페인
“전통시장, 지역경제 중요한 축”

전북도의회는 추석 명절을 앞둔 29일 남원 공설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상인들을 응원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와 이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승우 의장(군산4)과 이정린 의원(남원1), 임종명 의원(남원2) 및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함께했으며, 이만근 상인회장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뒤 장보기를 이어갔다.

특히 도의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 방문 활성화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온누리상품권 사용 촉진

등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나아가 앞으로도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미리 구입한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 쌀, 생필품 등을 구매해 남원 지역 사회복지 시설에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문승우 의장은 이에 대해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소상공인과 연대를 실천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인 전통시장을 더욱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 최초 반려동물 동반 캠핑장 ‘오수의견’ 개장

100억 투입 입실 ‘오수반려누리’ 조성
복합문화공간으로 지역관광 활성화

도내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문을 열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9일 입실군 오수면 금암리에서 반려동물 동반 ‘오수의견 국민여가 캠핑장’ 개장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장식에는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심민 입실군수, 도·군의원, 반려동

물 가족 및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새로운 지역 관광자원의 탄생을 축하했다.

이번 캠핑장 조성은 민선8기 김관영 도지사의 공약사업 중 하나로, 반려동물 산업을 전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

전북자치도는 총 100억 원을 투입해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오수반려누리’와 ‘오수의견 국민여가 캠핑장’을 조성했다. 이 사업은 반려가족에게는 세

로운 여가 문화를, 지역에는 관광 활성화와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오수의견 국민여가 캠핑장’은 약 9,000㎡ 부지에 조성됐으며, 오토캠핑데크 22면과 카라반 사이트를 포함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위한 샤워실, 위생관리 시설 등 반려 가족을 위한 맞춤형 편의시설을 갖췄다.

/장정철 기자

전용태 도의원, 학교 전기재해 예방 조례 제정

시설 점검·예방교육 강화·복구지원
학생·교직원 안전 확보 기반 마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의원(진안군)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전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고,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의 사전 예방과 피해 복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 예기치 못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기시설 노후화, 계절적 요인,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교육기관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매년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전기재해 유형과 현황 파악 △대응 매뉴얼 마련 △예방·복구



전용태 도의원

사업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교육청 차원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발의한 조례안은 예방과 지원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사업 추진 방향을 담고 있다.

예방사업에는 △노후화된 전기시설 교체 및 정기적 안전 점검 △누전 차단기와 같은 인증제품 및 최신 안전기술의 우선 적용 △24시간 상시 감시체계 구축 △전기재해 사례 분석과 대응 매뉴얼 보급 등이 포함된다.

지원사업은 사고 발생 이후 피해 최소화에 초점을 맞췄다. △피해 시설물 복구 △피해자 의료비 지원 △대응 장비와 인력 지원 △사례 연구 및 매뉴얼 보급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기안전 예방교육도 중요한 축이다. 올바른 전기 사용법, 안전수칙 준수, 전기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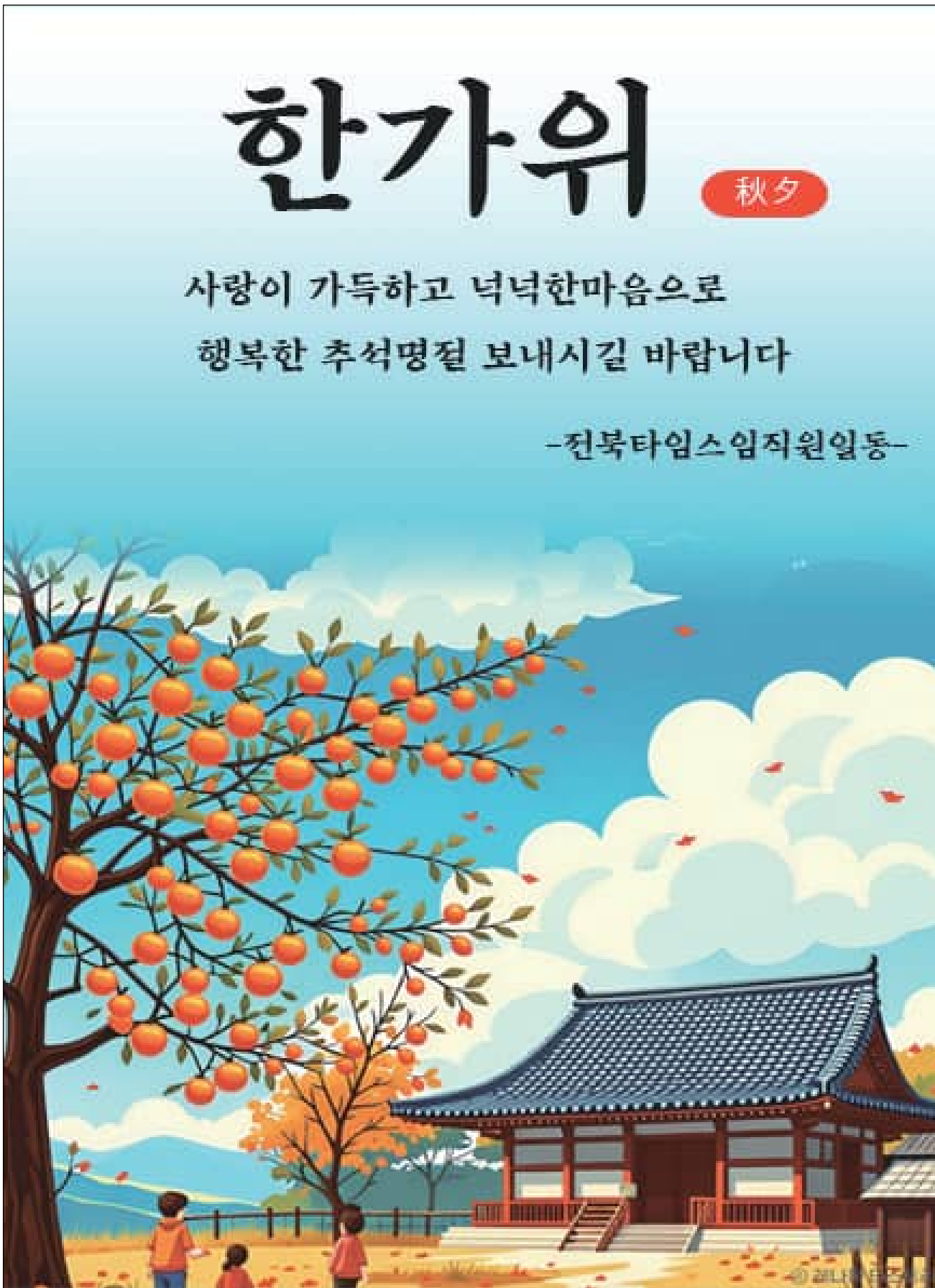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재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교육청은 지방정부, 유관기관,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전용태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전기재해는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조례가 교육현장의 안전망으로 작동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 교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육의 기본”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한 학교 현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학교 현장의 전기재해 사각지대 해소 △신속한 피해 복구 및 피해자 지원 △예방교육 내실화를 통한 안전문화 정착 등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무엇보다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장정철 기자



중기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신속히 추진해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불공정거래 부당행위 확대 우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025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지난 7월 15부터 9월 19일까지 온라인플랫폼(온라인쇼핑몰, 배달앱, 숙박앱) 입점 중소기업 124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온라인쇼핑몰 조사대상은 쿠팡(162), 네이버(173), G마켓(73), 11번가(70), SSG닷컴(59), 무신사(102), 기타(51) ‘배달앱’ 배달의민족(166), 쿠팡이츠(134), 요기요(50) ‘숙박앱’ 야놀자(100), 여기어때(100)’ 등이다.

조사 결과 지난 2024년 1년간 거래 중 불공정거래·부당행위 경험 비율은 △온라인쇼핑몰 30.0% △숙박앱 21.5% △배달앱 20.0%로 나타났다.

결과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의 시장지배력 확대 및 관련 법률의 입법 지연 등에 의한 불공정거래·부당행위 확대 우려를 낳고 있다.

이유로는 불공정거래·부당행위 유형(복수응답) 질문에서 “온라인쇼핑몰은 ‘상품의 부당한 반품’(15.4%), 배달앱은 ‘판매촉진비용이나 거래 중 발생손해 부담전가’(8.9%), 숙박앱은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7.0%)” 답변이 가장 많았다.

나아가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부당행위 등의 규율을 위한 법률 제정에 대한 의견은 온라인쇼핑몰(79.9%), 배달

앱(76.0%), 숙박앱(63.0%) 순으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답변이 많았으며 “법 제정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위반시 강력한 제재’를 1순위로 꼽았고, 2순위는 ‘공적 감독 강화(수수료 등 주기적 시장조사, 전담 기구 설치 등)’”로 나타났다.

온라인플랫폼에 지급하는 광고비, 중개 수수료 등 총비용에 대해서 입점업체들은 매출액 평균 20% 정도를 플랫폼에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개별 응답 내용에는 온라인쇼핑몰 총지급 비용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경우는 쿠팡(41%), 네이버·G마켓(각 40%), 배달앱에서는 배달의 민족·쿠팡이츠(각 40%), 숙박앱에서는 여기어때(50%)로 조사돼 일부 업체에서 매출액의 최대

50%까지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낮게 나타난 경우는 온라인쇼핑몰에서는 네이버(3%), G마켓(4%), 배달앱에서는 배달의 민족(5%), 숙박앱에서는 야놀자(1%)로 조사됐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중소기업체의 온라인플랫폼 매출 의존도가 높아지고, 플랫폼 시장지배력이 확대되면서 불공정·부당행위 경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해 광고료, 거래 수수료 등 과도한 수수료 체계에 대해 바로 잡아야 하고, 민간 협력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 ‘비대면 법인 입출금 계좌 가입 프로세스’ 시행

‘JB 기업플러스 통장’ 인터넷뱅킹 통해 개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법인고객 금융편의 제공을 위해 ‘비대면 법인 입출금 계좌 가입 프로세스’를 오늘부터 시행한다.

전북은행은 지난 5월 법인 비대면 예·적금 가입 프로세스 시행에 이어 이번엔 법인 입·출금 계좌도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입·출금 계좌가 가능했던 법인 고객들이 영업점 방문 없이도 기업 인터넷뱅킹을 통해 법인 서류 제출 및 비대면 실행을 통해 법인 입·출금 계좌 개설을 할 수 있게 됐다.

대상 상품은 ‘JB 기업플러스 통장’으로 법인 및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임의단체가 가입할 수 있다.

또 1기업 1계좌 가입이 가능하다.

우대서비스는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전북은행 및 타행 CD/ATM 출금, 입·출

금 통지서비스(SMS) 수수료가 면제되며 전월 기준 이 예금의 평균잔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 제공한다.

전북은행은 법인고객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JB와 콕(Corp)! 선물이 콕!’ 이벤트를 진행중으로, 이벤트기간동안 전북은행 입출금통장에 매월 말일 잔액 및 월평균잔액 500만원 이상을 유지하면 추첨을 통해 전북은행 기프트카드 10만원권(총 20명)을 지급한다.

아울러 이벤트 종료 시점인 10월 말일 잔액과 이벤트 기간 평균잔액 500만원

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추가 추첨을 실시해, 쿠팡 미니냉장고(총6명) 또는 삼성 에어드레서(1명)을 증정할 예정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이번 신규 프로세스 시행으로 지역 외 법인 거래 확대 및 자금량 증대에 기여함과 동시에, 고객의 편리한 비대면 금융 거래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업 고객의 금융 거래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농기원, 가을철 농작업 진드기 ‘주의’

긴팔·긴바지 착용 기피제 사용 등 예방수칙 당부

가을 수확철을 맞아 야외 농작업이 늘면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최준열)은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 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가진 진드기에 물려 감염된다. 국내 주요 감염병으로는 쯤쯤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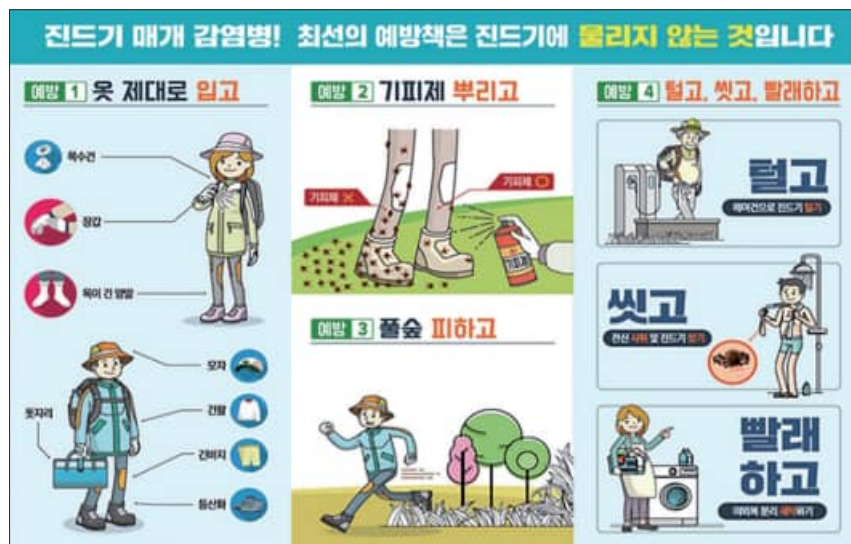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환자의 74.3%가 가을철(9~1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쯤쯤가무시증은 탈진드기 유행에 몰린 후 10일 이내 고열·오한 등 증상이 나타나고 검은 딱지가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며, 농작업, 제초 작업 등 야외 활동 시 주로 발생한다. 진드기에 물리면 2주 이내 고열·구토·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치료제와 백신이 없고 치명률이 약 18.5%로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방을 위해서는 △긴팔·긴바지 착용 등 피부 노출 최소화 △기피제 사용 △작업 후 즉시 샤워 및 작업복 분리 세탁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신속 방문 등을 지켜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권택 지원경영과장은 “예방 백신이 없는 만큼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라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상공회의소 창립 90주년 기념식 개최

전주상공회의소가 창립 90주년 맞아 “함께 한 90년, 더 나아갈 100년” 도약을 새롭게 다짐했다.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29일 창립 9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주상공회의소는 지난 1935년 창립 이후 전북 상공업 발전을 이끌어왔다.

이번 기념식을 통해 다가올 새로운 100년 비전을 선포했다.

행사에는 지역 상공인과 회원기업·기관·단체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정태 회장은 기념사에서 “전주상공회의소는 일제강점기의 험난한 시절 시작해 산업화와 외환위기, 금융위기, 팬데믹을 함께 이겨내며 지역 경제의 동반자로서 책임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회원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과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농식품부, 249 전통시장서 환급행사

10월 1~5일까지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0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전국 249개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개최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환급은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게시된 안내판, 바닥 유도선 등을 따라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확인 후 환급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을 활용하면 된다.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국산 농축산물 구매 부담이 덜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중기중앙회, 제2차 ‘디지털전환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9일 여의도 파크원 타워Ⅱ 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2차 디지털전환위원회’를 개최했다.

디지털전환위원회는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에 대한 현장 애로 수렴과 정책적 대안 모색 위한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ICT 전문가 및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 대표 경제단체이자 200만 이상의 고객을 보유한 종합 공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가 급변하는 디지털 경영 환경 속에서 중

소·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한병준 디지털전환위원장은 “중소기업 현장에서 원하는 과제를 발굴해 수요자 중심의 디지털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회는 업종별, 지역별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민간 영역에서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여러 전문위원의 의견을 경청해 연내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주덕진소방, 안전교육·복지 나눔 활동

아미고의 집 방문·지원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권기현)는 29일 아동복지시설 ‘아미고의 집’을 방문해 ‘119 안전복지 나눔의 날’을 운영하며 안전교육과 복지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자’는 마음으로 아동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아미고의 집은 2004년 설립된 공동생활가정으로, 카푸친 수녀님들이 어머니 자 친구처럼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보살피고 있는 곳이다.

이 자리에서 덕진소방서는 소방시설 점검과 피난 요령 교육을 비롯해 심폐소생술과 하임리히법 등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는 특별히 카푸친 수녀회 소속 수녀님들이 직접 참여해 위급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며 안전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했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혈압 측정 등 기초 건강검진과 생활용품 지원이 함께 이뤄졌다.

교육을 통해 실질적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권기현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이번 나눔은 지역 사회 동반자로서 실질적 복지와 안전을 함께 실천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아미고의 집과 같은 복지시설과 손잡고 안전을 나누는 소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

LX, 키르기스스탄에 K-주소 컨설팅

K-주소 기반 연수 교육 주소관리 역량 강화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사장 어명소)가 키르기스스탄 토지자원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소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이번 연수는 행정안전부와 LX공사가 K-주소 해외 진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키르기스스탄 주소체계 현대화 컨설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수에서 키르기스스탄 공무원들은 한국 주소체계의 역사, 유형, 법·제도 및 도로명주소로의 주소체계 개편사업의 이해 등 강의교육을 받았다.

아울러 주소 기반 산업서비스 제공 현황 파악, 주소활용 사례 견학 등 현장학습을 통해 한국주소정보시스템의 주소데이터 구축·관리 체계를 체험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 토지자원청 공무원들은 한국주소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인 운영구조와 정확하고 상세한 주소데이터관리 체계, 다양한 산업서비스 제공 현황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LX공사가 주관한 ‘2025 주소혁신 국제 콘퍼런스’ 및 ‘2025 K-Geo Festa’행사에 참가해 AI 등 신기술과 융합하는 주소 및 공간정보 산업의 미래상도 경험했다.

키르기스스탄 토지자원청 독토수도프 부처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효율적이고 표준화된 한국주소체계에 대해

깊이 알게 됐고, 이를 토대로 키르기스스탄 주소체계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X공사 심병섭 공간정보본부장은 “LX공사는 키르기스스탄 주소체계 현대화를 위해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공무원들의 역량이 강화되는 물론, K-주소체계를 이해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소민 기자

전북테크노파크, 농생명바이오 산업 유망기업 지원

‘스케일업 IR 피칭데이’ 개최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가 29일 ~30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농생명바이오 스케일업 IR 피칭데이’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스위트호텔에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전북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일환으로 마련됐다.

금년도에는 도내 창업 유관기관들이 공동 개최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산·학·연 통합 IR Demo-day’ 행사 내 독립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전북테크노파크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 협력해 ‘농생명바이오 스케일업 IR 피칭데이’를 통해 농생명 및 바이오 산업에 특화된 유망기업 11개사를 발굴해 IR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다수의 벤처캐피털(VC), 투자기관, 유관기관이 참여해 창업기업의 실질적인 투자 유치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 등을 마련했다.

29일 IR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고도화 교육이 진행됐다.

이후 양일간 7개 기관별로 IR 피칭 프로그램을 진행해 참가 기업들이 투자자의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하고 투자자들의 밀도 있는 피드백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특히 행사는 실제 투자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IR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더불어 △IR 피칭 이후 관심을 보인 VC들과 참여기업 간의 후속 미팅 △멘토링 △맞춤형 투자컨설팅 등 지속적인 후속 연계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이종한 단장은 “지역 유망 기술기업들이 장기적으로 투자와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로봇청소기 등 전자 제품
전원차단

◇전등은 장시간 켜놓으면
과열되므로 소등하기

◆가스 중간 밸브 잠그기

군산시, 노인의 날 기념 유공자 표창 등 경로 효친 문화 확산

군산시가 29일 월명실내체육관에서 1,200여 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사)대한노인회 군산지회와 주최로 개최된 이번 노인의 날 기념행사는 지역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해 오신 노인들의 헌신에 감사드리고 경로 효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색소폰 연주와 금강문화예술단의 무대로 시작한 행사는 기념식에서 모범 노인과 유공자 12명이 시장 표창을, 모범 노인 7명이 지회장상을 받으며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세대 간 존중과 화합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사회에 모범이 되는 노인 등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은 포상자들에게 열렬한 박수와 함께 축하와 감사를 보냈다.

이어 노래자랑과 초청 가수 공연 등 다채로운 순서가 마련돼 어르신들의 웃음과 박수로 이어졌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의 발전은 어르신들의 삶과 발자취 위에 세워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 미성동 '위킹 투게더 동행 투어' 임실치즈테마파크 방문

군산시 미성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가 관내 교육급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특화사업 체험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활동은 청소년들에게 평소 접하기 어려운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협동심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27일 청소년들과 인솔자 역을 맡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함께 임실 치즈테마파크를 방문했으며 피자만들기 및 테마파크 탐방 등 다양한 체험을 즐겼다.

체험활동에 참여한 학생은 “직접 피자를 만들어 보니 재미있었고 친구들과 함께라 더 즐거웠다. 이런 체험을 자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김윤희 미성동장은 “함께 해주신 협의체 위원장 및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라며 “위킹 투게더 동행 투어는 한 장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감사과 인성을 함께 기르는 교육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을 통해 자존감과 창의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 가리대마을, 주민 손으로 만든 코스모스 축제 '성황'

가을의 절정을 배경으로 열린 정읍 코스모스 축제가 지난 26일 입암면 가리대마을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주민 주도의 기획과 참여로 마을 축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이번 축제는 생생마을 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돼,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코스모스 꽃길을 배경으로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어울리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축제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 축제를 목표로 기획됐다.

단순한 행사를 넘어 마을의 자긍심을 높이고 공동체 화합을 다지는 장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학수 시장은 “가리대마을 코스모스 축제가 주민이 주도하는 생생한 마을 축제로 지역 공동체의 자력을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마을 고유 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축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건립 '첫발'

국내 최초 식물성 대체 식품 연구 거점 마련 내년 12월 준공 목표

익산시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도할 푸드테크 거점 도시로 도약한다.

익산시는 29일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에서 '식물성 대체식품 분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건립에 돌입했다.

연구지원센터는 전국 최초의 식물성 대체식품 분야 푸드테크 연구 거점 시설로, 원천기술 확보와 사업화 지원 등을 목표로 한다.

시는 지난해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으며,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센터 건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연구지원센터는 총사업비 115억 원

을 투입해 연면적 1,500㎡ 규모로 조성된다.

준공 이후에는 기업 맞춤형 대체육 시제품 제작, 산업 연계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한다.

식물성 대체식품은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의 하나로 국내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내 시장은 2017년 이후 연평균 15.7% 성장해 2026년 2,800억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고, 해외 시장도 연 15~20% 성장률을 보이며 새로운 식생활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시는 연구지원센터가 건립되면 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뒷받침해 매출 증대를 견인하고, 농산물 수요 증대를 통해 농가 소득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착공식에는 정현율 익산시장, 전북특별자치도 김중훈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도·시의원, 농림축산식품부·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임주기업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추석명절 장보기' 전통시장 활력

상인 애로사항 청취 취약계층에 물품 전달

정읍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에 나섰다.

시는 29일 이학수 시장을 비롯해 공무원, 전통시장 상인회장 등이 함께 생고를시장, 연지시장, 신태인시장을 방문해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상인들을 격려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역 농산물과 제수용품, 생활필수품 등을 구매했다.

특히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의 확산으로 위축된 상인들을 직접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또 시장을 찾은 시민들과도 명절 덕



정읍시는 29일 이학수 시장을 비롯해 공무원, 전통시장 상인회장 등이 함께 생고를시장, 연지시장, 신태인시장을 방문해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담을 나누며 훈훈한 분위기를 더했다.

행사에서 마련된 물품은 각 시장 상인회가 관내 사회복지시설 6개소와 저소득 취약계층 3세대에 전달했다.

또한 정읍시 실과소와 읍·면·동 직원들도 부서별로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에 동참해 시장 이용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강임준 군산시장, 군·경 위문 격려

추석 명절 맞이 위문품 전달 등 감사 전례

강임준 군산시장이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둔 29일, 지역방위와 치안유지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경을 방문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강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애쓰는 군·경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 명절인데도 고향에 가지 못하고 국방을 위해 애쓰는 군장병들에게는 위문품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군산시는 매년 설·추석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장병과 치안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경찰을 찾아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관계기관 간 유대관계를 강화해 유사시를 대비한 지역 통합방위 및 치안유지 능력 향상을 위해 서로 애쓰고 있다.

군산대대 김용희 대대장(중령)은 “명절이던 고향 생각이 간절한 장병들에게 시장님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따뜻한 격려가 큰 힘이 된다”라며 “보내주

신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완벽한 국토통일 태세와 시민 안전 확보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풍요로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군·경 여러분의 노고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 “시민을 대신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군산시 지역 방위와 치안유지에 든든한 한 축이 돼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 3만 8천8백여 명 방문

최다 관람객 기록 대표 야간축제 입증

홀로그램의 도시 익산에서 열린 '제4회 익산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29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난 18~21일과 26~28일 총 7일간 3만 8,800여 명이 방문해 역대 최대 관람객을 기록했다.

터 큰 관심을 모으며 사전예약자 2만 2,700여 명을 기록하는 등 명실상부 '가

을 대표 야간축제'로 입지를 굳혔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미스터리 연구소-끝나지 않는 실험'으로, 인공지능(AI)과 인간의 공존을 꿈꾸다 중단된 비밀 실험이 되살아나는 설정을 통해 극강의 몰입형 공포체험을 선사했다.

또한 올해 처음 도입된 '데이터 쿠폰 제도'는 체험 대기 시간을 분산시키고, 첨단 홀로그램 기술과 스토리텔링을 결합한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를 활성화해 관람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시는 원활한 축제 진행을 위해 운영

에도 힘썼다. 사전·현장 접수를 병행하고 행사장 내 주차 전면 통제와 셔틀버스 운영 등 안전대책도 철저히 마련해 큰 사고 없이 축제를 마무리했다.

정현율 익산시장은 “올해 페스티벌은 새로운 세계관과 한층 발전된 콘텐츠로 전국에서 관람객이 몰리며 홀로그램 선도 도시 익산의 위상을 더욱 높였다”며 “내년에는 더 다양한 콘텐츠와 첨단 기술로 관람객을 맞이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추석 연휴 응급진료체계 가동

222개 병원·약국 지정 운영

군산시 보건소가 추석 연휴인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시민과 귀향객이 건강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내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운영한다.

이외에도 연휴 동안 응급진료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며 △응급진료 기관 현황 점검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안내 △운영현황 모니터링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관내 응급의료기관인 군산의료원과 동군산병원은 평소와 동

일하게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해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보건지소·진료소를 비롯한 병·의원과 약국 222개소가 날짜별로 운영돼, 연휴에도 시민들이 불편 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연휴기간 중 진료 가능 기관 정보는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 △군산시청·보건소 누리집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 농산물 '안전'

13개 품목·463건 안전성 검사

익산시가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나섰다.

익산시는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된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통해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제수용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사 결과 13개 품목 463건에 대해 익산시는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된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통해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제수용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사 결과 13개 품목 463건에 대해

익산시는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된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통해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제수용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사 결과 13개 품목 463건에 대해

익산시는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된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통해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제수용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사 결과 13개 품목 463건에 대해 익산시는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된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통해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제수용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수용 과일·채소류는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잔류농약이 허용 기준치 이내로 검출된 농산물도 검질 빗기기, 씻기, 데치기 등의 조리 과정을 거치면 성분이 대부분 제거되거나 분해된다고 설명했다.

정현율 익산시장은 “이번 특별 모니터링을 통해 익산 농산물의 안전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농림축산식품부, 상생 직거래 장터

정읍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정부세종청사 광장에서 '상생 소비 활성화 직거래 장터'를 열어 정읍 농·특산물 홍보와 소비촉진에 나섰다.

29일 열린 이번 행사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 자매결연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시는 쌍화차, 태추단감, 멜론을 비롯해 30여 종의 농·특산품을 선보여 농림부 직원과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현장에서는 쌍화차와 귀리 선식 등 무료 시음·시식 코너도 운영돼 정읍 농산물의 맛과 우수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QR코드를 활용한 '단풍미인 쇼필름' 온라인 홍보전이 병행돼 현장 판매는 물론 비대면 소비 확대에도 힘을 보탰다. 이를 통해 정읍 농산물의 판로를 넓히고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직거래 장터는 정읍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와 긴밀히 협력해 정읍 농산물 경쟁력을 높이고, 문화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추석 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

10월 1~5일까지 최대 4만원

익산시가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 이벤트를 진행한다.

익산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추석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구입하면 각각 구매금액의 최대 30%, 농축산물 2만 원에 수산물 2만 원까지 최대 4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농축산물은 북부시장·익산장·서동시장, 수산물은 북부시장·익산장·남

부시장·구시장 내 지정 점포에서만 적용된다. 구매 금액별 환급액은 △3만 4,000원~6만 7,000원 미만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시 2만 원이다.

환급 방법은 당일분 영수증을 시장에 마련된 환급 부스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시하면 된다. 시장별 환급 부스는 △북부시장·익산장 '서울떡집' △남부시장·구시장 '남부시장광장' △서동시장 '어나더탑 커피숍' 인근에 설치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급 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건강한 소비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완주군수, 행안부에 ‘조속한 결단’ 촉구

유희태 군수, 6차 간담회 입장 발표 “군민 뜻 반영한 공정 절차 필요” “통합무관상생협력사업 지속해야”

유희태 완주군수가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완주 통합 논의를 둘러싼 갈등과 혼란을 조속히 매듭짓기 위해 법적 최종 결정권자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유 군수는 지난 25일 서울에서 열린 전주·완주 행정통합 논의 6차 간담회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장관, 전북도지사, 전주 시장, 지역 국회의원 2명이 참석해 전주·완주 행정통합의 향후 방향과 절차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유 군수는 기자회견에서 “저는 여론

조사를 통해 군민 대다수가 반대하면 통합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그동안의 입장에서 한 치도 변함이 없다”며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최종 결정권을 가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유 군수는 “향후 절차와 관련해 아직 어떠한 것도 확정된 바 없다”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더라도 군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군수는 통합 논의와 별개로 완주의 미래 성장 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군수는 “지난 2013년 당시 완주, 전주 상생협력 사업이 추진됐지만 통합이 무산되자 대부분의 사업이 중단돼 군민들이 큰 상실감을 느꼈다”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완주, 전주 상생협력 사업은 통합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주군은 전북도, 전주시와 13차에 걸쳐 28개의 상생협약을 진행해 왔으며, 1차 사업인 상판저수지 물레길 힐링공원 조성이 내달 중 착공, 6차 사업인 고산 파크골프장은 내달 중 준공 예정이다. 9차 사업인 만경강 물고기 철길 조성사업은 내달 1일 착공식을 열고 본격 추진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유 군수는 완주군의 미래 성장 전략 중 하나인 피지컬 AI(Physical AI) 사업을 상생 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유 군수는 “군민 여러분께서도 정확한 정보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갈등 최소화 및 완주의 미래를 함께 만드는 것에 마음을 모아주시길”을 당부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의회, 6자회담 도지사 태도에 유감 표명

투표 확정인 듯 발언 ‘혼란 야기’ “주민 존중 없는 투표, 갈등의 불씨”

완주군의회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완주·전주 행정통합 6자회담’ 결과와 관련해, “군민의 뜻을 존중하지 않은 주민투표 강행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뿐”이라며 29일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회담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조만간 주민투표를 포함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언급했고, 김관영 도지사는 주민투표 일정을 직접 제시하며 이미 결정된 것처럼 발언했다.

이에 대해 완주군의회는 “군민들에

게 불필요한 혼란과 잘못된 신호를 준 무책임한 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유익식 의장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5조를 근거로, “통합 권고 시 행안부 장관은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주민투표는 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절차”라며, 최근 제기되는 ‘반드시 주민투표’ 주장은 사실과 다른 왜곡된 논리임을 지적했다.

군의회는 군민의 뜻이 이미 충분히 확인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2013년 주민투표에서 반대가 55.3%로 나타나 통합이 무산된 바 있으며, 이후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반대율이 66%에서 71%까지 오르는 추세다.

유 의장은 “주민투표 강행은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뿐”이라고 밝혔다.

완주군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통합 권고 시 반드시 완주군의회 의견 청취 △군민 대의기관인 의회 의견 존중 △국가사업 통합 연계 중단 △상생협력 사업 합의 이행 등 4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완주=김명곤기자

‘K-드론’ 글로벌 축제, 남원국제드론제전이 있다

전주드론월드컵서 ‘드론제전’ 홍보 드론국제심포지엄 참석 관심 집중

대한민국 드론 산업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2025 K-Drone to World Festival’의 열기가 부산 개막에 이어 전주에서 펼쳐진 가운데, 남원시가 오는 10월 개최되는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을 적극 홍보하며 주목을 끌었다.

남원시는 지난 25일 전주에서 열린 전주드론축구월드컵 현장에서 관람객과 선수단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전주 더 메이 호텔에서 열린 드론산업 국제 심포지엄에도 참석해 남원국제드론제전의 주요 프로그램과 개최 의의를 소개하며 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남원국제드론제전은 오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일원에서 개최된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남원시가 전주드론축구월드컵 현장에서 오는 10월 개최되는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을 적극 홍보하며 주목을 끌었다. <사진=남원시>

주관하는 K-Drone to World Festival과 연계해 드론과 로봇을 아우르는 풍성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세계 최정상급 선수가 참가하는 드론·로봇 스포츠 대회, 드론·로봇 산업 전시와 국제 컨퍼런스,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드론공원 및 체험 페스티벌, 지역 농특산물과 글로벌 음식을 아우르는 글

로컬푸드 페스티벌이 마련된다.

남원시는 이번 전주 홍보를 통해 국내외 참가자들에게 “드론·로봇 산업의 미래와 레저·관광이 어우러진 축제 도시 남원”의 이미지를 적극 알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 및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글로벌 수준의 드론 축제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긴급 회의

최영일 군수 주재 대책회의 소집 피해현황 공유·대응안 집중 논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인해 전국적으로 공공 정보시스템 장애가 속출한 가운데, 최영일 순창군수는 29일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대응에 나섰다.

이번 화재는 총 647개 정부 업무 시스템 가동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으며, 이 중 대국민 서비스는 436개에 달한다. 특히 모바일 신분증, 국민신문고 등 1~2등급의 핵심 민원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 전국민적인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순창군의 경우, 총 99개 정보시스템

중 43개(약 43%)가 장애 발생했으며, 이 중 대민용 서비스 25개, 내부처리용 서비스 18개가 영향을 받았다. 피해의 주요 원인은 행정안전부 피해 시스템과의 자료 연동 서비스 장애로 분석되고 있다.

최 군수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부군수를 중심으로 행정과, 안전재난과, 민원과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비상 대응대책반을 즉시 구성했다.

이번 긴급회의에서는 부서별 피해 현황과 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대민용 서비스에 대해 수기 접수 전환, 긴급 복지 지원금 선지급 등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또한 군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난 29일 순창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대응하고자 군수 주재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사진=순창군>

공식 홈페이지에 시스템 장애 현황을 게시하고, 민원 접수는 전화, 방문, 팩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복구가 완료된 서비스부터 순차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계획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추석맞이 복지시설 군부대 위문 활동

사회복지시설·자매결연 가정 군부대 방문 따뜻한 정 나뉘

남원시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자매결연 가정,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 활동을 펼쳤다고 전했다.

이번 위문 활동은 명절을 맞이하여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사회복지시설과 군부대에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경식 시장은 “추석은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인 만큼,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따뜻

한 마음을 전하고자 위문 활동을 계획했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지역사회의 결속력이 더욱 두터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최경식 시장은 “위문을 통해 사회복지시설과 군부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더욱 의미 있는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남원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헌정회, 유해어종 퇴치·생태문화공간 조성

생태체험문화공간 조성 설명회 관광 연계 6차 산업 모델 발전

완주군이 대한민국 헌정회(회장 정대철)와 함께 최근 토종 어종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외래어종인 블루길과 배스 등 생태계 유해 어종 퇴치 및 생태체험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8월 환경 유해 어종 퇴치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개최됐다. 이날 유희태 군수와 대한민국 헌정회 정대철 회장 및 헌정회 관계자, 체험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 유익식 군의장, 도 교육청 관계자 및 ㈜하림 사료업체 관계자도 참석했다.

블루길과 배스를 비롯한 유해 외래어종은 약 40여년 전 국내에 들어와 이제는 거의 토착화 단계에 이른 생태계 교란 어종이다.

하천과 저수지 등에서 최상위의 포

식자로 군림하면서 치어, 새우류를 비롯한 토종 어종을 무분별하게 잡아먹는 등 하천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에 완주군과 헌정회는 생태계 교란 어종 단순 퇴치에 그치지 않고, △포획을 통한 내수면 어업 활성화(1차 산업), △수매 어종의 사료·비료화 가공(2차 산업), △유해어종 낚시와 학생 체험·관광 프로그램(3차 산업)으로 연계해 6차 산업 모델로 발전시켜 환경보호와 지역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완주와 경계지역인 왕궁저수지를 익산시와 함께 관광 자원화하기로 했으며, 설명회에 참석한 하림 관계자는 포획한 생태 교란 어종을 전량 구입하기로 약속하고,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은 생태 유해 어종 퇴치 효과에 대해 완주연구원과 함께 공동 연구하기로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의회, 정례회 마무리·현장조사 착수

특위 구성·행정사무감사 진행 주민자치회·스마트 경로당 제언

순창군의회(의장 손종석)는 지난 29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3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순창군수가 제출한 안건 9건을 의결했으며, 특히 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행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0월 중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또한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9일간 진행되어 군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의견과 지적사항은 결과보고서로 종합 정리해 다음 회기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신정일이 의원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마하룡 의원이 ‘스마트 경로당 구축 조성사업 촉구’를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하며 군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EBTS남원지국 평강원서 추석맞이 봉사활동

사회적 가치 실현 협동조합 활동

소셜벤처기업 ebts 협동조합(회장 이승원) 남원지국 김중관지국장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평강원서 추석맞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에서 활동중인 가수 5명은 처녀농군들 70-80년대 노래와 노인환

씨의 하모니카와 색소폰연주로 흥을 돋구며 추석을 맞아 외로우신 어르신들에게 위로와 행복의 웃음을 전하며 구석구석 청소와 먼지를 털면서 부모님을 대하듯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독도사랑주유소를 운영하며 신주유원하 앱을 이용 따뜻한 배달주유와 사랑을 전하는 스타트업 기업으로 남원에도 2백여명의 조합원들이 지역 경제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남원=정하복기자

남원, 유네스코 기록유산 전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조명

남원시는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근현대 기록저장소 남원다움관에서 순회전시 ‘세계에 새겨진 혁명의 기록’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가유산청, 전북도, 정읍시가 주최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총괄을 맡아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순천대학교, 남원다움관이 공동 주관한다. 장흥, 광주, 순천에 이어 네 번째로 찾은 남원은 동학농민군의 주요 전적지인 만큼 그 의미를 더한다.

202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작성된 총 185건의 문건으로 혁명의 사상적 깊이와 조직적 실전을 증명하는 귀중한 자료이다.

동학농민혁명의 핵심 가치를 조명하는 이번 전시는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 ‘변화와 개혁의 기록 - 평등한 세상을 꿈꾸다’는 불평등한 신분제와 수탈에 맞선 농민들의 열망을, 2부 ‘협치와 상생의 기록 - 관민상화를 그리다’는 협력과 자치의 실험을 보여준다. 3부 ‘자주와 향전의 기록 - 외세의 침략에 맞서다’는 외세에 맞선 항쟁을, 4부 ‘정의와 인권의 기록 -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다’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씨앗이 된 혁명의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아카이브 존과 교육체험 존을 통해 관람객이 기록물을 직접 살펴보고 혁명의 정신을 체험할 수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새희망 창업교육’ 개설 최대 5천만원 특례보증 연계

완주군이 예비 창업자의 성공적인 정착과 창업 생존율 제고를 위해 ‘2025년 완주 새 희망 창업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오는 10월 17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창업에 필요한 기초지식부터 실전 사업과 역량까지 단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총 50시간 진행되며 교육 수수료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창업자금 특례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과정은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심화과정은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운영된다. 모집 대상은 완주군 내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이며, 외국인의 경우 F5·F6 비자 소지자도 신청 가능하다. 교육비 전액 무료이며, 모집인원은 20명 내외다.

교육 내용은 △창업 절차와 사례 △창업 지원 제도 △고급점점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전략 △SNS 활용 △사업계획서 작성 등 창업 준비에 꼭 필요한 실무 중심으로 편성됐다. 심화과정에서는 상권·임지 분석, 사업 타당성 검증, 실습 중심의 사업계획 수립 등 보다 심화됐으며 특히 이번 교육은 전문 창업 컨설턴트의 1:1 맞춤형 컨설팅 및 멘토링을 함께 제공한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2025 예비귀농귀촌인 준비교육 성료

순창군이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관외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순창군 예비귀농귀촌인 준비교육이 지난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서울,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예비 귀농귀촌인 20명이 참여했으며, 발효테마파크, 장류체험관, 실랜드, 농업기술센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등 순창군 주요 시설과 농장을 직접 체험하며 지역의 농업·문화·관광 자원을 폭넓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과정은 △순창군 귀농귀촌 정책 소개 △값등 예방과 주민 간 소통 교육 △도양 이해와 기초 영농방법 △귀농 선배 특강(나의 귀농 이야기) △치유농업 및 특산물 농장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정착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고루 익힐 수 있도록 했다.

교육 종료 후 실시한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는 참석자 전원이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해 순창군 귀농귀촌 지원정책과 교육 과정의 내실을 입증했다.

교육생 A씨는 “농기계임대사업장, 발효미생물 연구시설, 가공장 등을 둘러보며 귀농의 꿈을 더 크게 키울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 홍보대사 가수 배아현, 완주군에 2백만원 기부

완주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인 트로트 가수 배아현 씨가 지난 26일 완주 와일드&로컬푸드축제 현장에서 기탁식을 열고 200만 원을 기부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배아현 씨는 “아버지의 고향이 완주이고, 할머니와 친척들이 지금도 완주에 살고 있어 완주는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라며 “군민들을 위해 마음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배아현 씨의 따뜻한 기부는 군민들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전하는 귀한 선물”이라며 “기부금은 문화·복지 등 군민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사람 중심 따뜻한 지역사회’를 실현하고,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여 더 큰 가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임실 신덕면새마을지도자회·부녀회, 추석맞이 김치 나눔 행사

임실 신덕면 새마을지도자회(회장 유한철)와 새마을부녀회(회장 이행복)가 지난 26일 이행복 부녀회장 자택에서 추석맞이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으며,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원 20여 명이 절임, 양념 버무리기, 포장까지 손수 정성을 담아 김치를 담갔다.

정성껏 완성된 김치(5kg, 1통)는 마을별로 배부되어 신덕면 17개 마을의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했으며, 마을당 5가구씩 총 85가구가 이번 나눔의 혜택을 받았다.

이행복 부녀회장은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성을 모아 만든 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국제라이온스협회, 군산수해민에 긴급 생필품 기탁

총1천만원 상당 라면 등 전달 이재민 위로·회복 응원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전북) 지구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산지역 저소득 가구를 돕기 위해 총 1천만 원 상당의 긴급 생필품을 군산시에 기탁했다.

이번 생품 기탁은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위기 상황을 극복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전달된 생품은 △라면 107박스, △백미(10kg) 80포, △화장지 100 묶음으로,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저소득 및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29일 전달식에 참석한 박성춘 총재는 “갑작스런 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제라이온스협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실천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장수군 한우협회, 장수군에 한우 고기 51kg 기탁

추석맞이 이웃사랑 실천

장수군은 장수군 한우협회(지부장 이상식)가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 이용 취약계층 지원에 시가 약 197만 원 상당의 한우 불고기용 51kg를 기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한우는 전북공동모금회를 통해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어,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명절 음식을 선물할 예정이다.

장수군한우협회는 매년 명절과

연말마다 지역사회에 이웃돕기 성품을 꾸준히 기탁하며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나눔 문화를 실천해 오고 있다.

이번 기탁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 축산농가가 군민과 함께하는 상생의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장수군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이 큰 시기에 마련된 이번 나눔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경제적·정서적 위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식 장수군한우협회 지부장은 “지역에서 정성껏 키운 장수한우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전하는 매개체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우협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가 군민과 함께하는 장수군한

/장수=최진수 기자



순창 강천사, 순창군에 성금 1천만원 기탁

통일신라 말 도선국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는 순창의 천년고찰 강천사가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최근 강천사 지일 스님은 순창군청을 찾아 저소득 아동과 문화소외 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천만원을 최영일 군수에게 전달했다.

강천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인 선운사의 말사로, 조선불교 초대 7인 중정 중 한 분인

석전 박한영 대종사가 1912년부터 1918년까지 연대암을 비롯해 구암사, 만일사 주지를 겸임한 유서 깊은 전통사찰이다.

지일 스님은 “올해 초 주지 소임군청을 찾아 이후 지역을 위한 실질적인 나눔을 실천해야겠다는 마음을 품어왔다”면서 “이번 기탁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하는 수행자로 살아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행복드림복지회 두리ENG, 고창군에 5백만원 기탁

행복드림복지회 두리ENG(대표 김선례)가 지난 26일 제19회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대회(이하 장애인체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고창군장애인체육회에 500만원의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전북공동모금회를 통해 제19회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대회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행복드림복지회 두리 ENG 김선례 대표는 “고창군에서 진행되는

제19회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대회라는 의미있는 날에 힘이 되었으며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행복드림복지회 두리 ENG의 따뜻한 나눔이 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민·관 협력 복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뜻을 표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무주읍발전협의회, 장학금 1백만원 기탁

무주군은 무주읍발전협의회가 지난 29일 (재)무주군교육발전 장학재단(이사장 황인홍 무주군수)에 장학금 1백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성용 회장은 “오늘 장학금은 무주읍발전협의회 회원들이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 천원 국수 부스에서 직접 일하며 얻은 수익금 중 일부로, 우리 지역 학생들을 위해 쓰자는 마음을 모아 전달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무주군 인재 양성은 물론, 지역발전과 이웃 행복을 위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희호 기자



남원 춘향라이온스클럽, 추석맞이 추어탕 밀키트 기부

지난 26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남원 춘향라이온스클럽에서 추어탕 밀키트를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영양가 높은 전통 보양식인 추어탕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밀키트 형태로 독거노인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남원 춘향라이온스클럽(회장 이주현)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따뜻한 힘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약속드리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정읍시 새마을부녀회, 추석맞이 김치 400포기 나눔

정읍시 새마을부녀회(회장 최금순)가 추석을 앞두고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를 열어 홀몸어르신과 소외계층 250여 세대에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정읍시 새마을회관에서 읍면동 새마을부녀회장 25여 명이 참여해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완성된 김치는 홀몸 어르신과 소외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직접 전달돼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더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추석명절에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해
전 좌석 안전띠 필수 착용

안전거리 유지

무리한 추월을 삼가고
차 간 안전 거리 유지

안전운행 수칙

자동차 안전점검 받기

장거리 운행 전 자동차 점검 필수
특히 제동장치와 타이어 점검 필수

음주운전 절대 금지

한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운전은 절대 금지!

〈一事一言〉



한국 극우세력은 왜 중국을 혐오하는가(2)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

사람의 사회적 생명이나 사회에 해로운 대상에 대한 혐오는 육체적 생명을 위협하는 것에 대한 혐오의 사회적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의 혐오는 생물학적 혐오 - 본능적 혐오 혹은 원초적 혐오라고 할 수도 있다 -, 후자를 사회적 혐오라고 한다.

사회적 혐오는 주로 사회의 생존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에 대한 감정반응이다. 사회적 혐오는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에 대한 감정반응이므로 사회가 불안해지면 불안해질수록 혐오 현상은 심해진다.

예를 들면 한국인들이 심각한 생존 위기 등으로 인해 자신과 사회의 안전이 위협당한다고 느끼는 정도가 심해질수록 이주민이나 여성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도 심해진다는 것이다. 사회적 혐오 중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는 무조건 악이다. 어떤 사회가 박쥐나 돼지를 혐오한다고 해서 그것을 악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집단이든 간에 특정 집단을 혐오하는 것은 악이다.

집단과 그 집단의 구성원인 사람은 사람과 종종의 대상이지 어떤 경우이든 혐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혐오는 사람과 종종의 대상이자 종종의 대상이어야 하는 사람을 그가 특정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혐오한다는 점에서 악일 수밖에 없다.

한국 극우세력의 중국 혐오는, 만일 중국이 한국의 안전을 현재

하게 위협한다면, 그나마 일말의 타당성이라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극우세력은 중국이 한국의 안전을 현재까지 위협하고 있지 않음에도 광적으로 중국을 혐오한다. 이것은 극우세력의 중국 혐오가 자연발생적인 혐오가 아닌 조작된 혐오 혹은 왜곡된 혐오임을 의미한다. 한국 극우세력의 중국 혐오에 객관적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와는 별개로 그들이 평범한 중국 관광객들까지 혐오하는 것은 악이다.

혐오는 강한 대상이 아닌 약한 대상에 대한 감정이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해로운 대상을 싫어하거나 미워한다. 그렇지만 자신에게 해로운 대상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항상 혐오감을 체험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해롭기는 하지만 자기보다 강한 대상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혐오가 아닌 분노나 증오를 느낀다. 반면에 사람들은 자신에게 해로운 동시에 자기보다 약한 대상에 대해서는 혐오를 느낀다.

혐오가 약한 대상에 대한 감정이라는 것은 혐오가 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표출된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조선 시대의 지주계급인 양반과 농민계급인 평민 사이의 관계에서 평민은 자신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양반에 대해 분노하고 증오했다. 그렇지만 양반은 평민들이 자신을 증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그에 별로 개의치 않았다. 평민은 양반을 위협할 정도로 강하지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반은 평소에는 평민

을 향해 분노 - 평민들이 봉기를 일으켰을 때는 예외이다 - 하지만 증오했을 때도 많았다. 그냥 쓴 외 보듯 혐오했을 뿐이다. 일제 강점기에 한국인들이 일본인에게 느꼈던 일반적인 감정이 분노나 증오라면 일본인들이 한국인에게 느꼈던 일반적인 감정은 혐오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자신에게 해로운 대상을 강한 대상과 약한 대상으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감정을 체험하는데, 자기보다 강한 대상에 대해서는 주로 분노와 증오를 느끼지만 자기보다 약한 대상에 대해서는 혐오를 느낀다.

혐오는 약한 대상에 대한 감정이므로 사회적 혐오는 필연적으로 약한 사람들이나 사회집단을 향하기 마련이다. 이런 점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혐오는 지배자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혐오는 약한 대상에 대한 감정이므로 한국의 극우세력이 중국을 혐오한다는 것은 그들이 중국을 약한 국가로 여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객관적인 현실 인식일까? 중국은 한국과의 비교를 기준으로 삼더라도 절대로 약한 국가라고 할 수 없다. 단적으로 중국은 핵무장 국가이고 달에 우주선까지 보내고 있는 국가이지 않은가.

한국의 극우세력이 중국을 깔보고 혐오하는 것은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강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중국보다 훨씬 강하다고 믿어서다. 한국의 극우세력은 미국을 여전히 세계를 호령하는 천하제

일 강국으로 여기고 있으며, 미국의 충성스러운 일등 하수인인 자기들도 천하무적이라고 믿는다. 통속적으로 말하자면, 약하고 조그마한 아이가 강패 형을 뺏아 자기보다 강하고 큰 아이한테 마구 잡혀대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극우세력이 천하무적 강국이라고 믿고 있는 미국은 중국과의 무력대결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국가방위전략을 수정하려 하고 있다. 폴리티코(POLITICO) 보도에 의하면 미국의 국방부가 새로 작성하고 있는 국가방위전략(NDS)은 중국 및 러시아 역제보다 국내 및 지역 임무를 우선시하고 있다.

단순화시켜 말하자면, 이것은 미국이 북중러 같은 핵무장 국가들과의 무력대결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미국이 본토 쪽으로 밀려나거나 후퇴해야만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작 미국은 중국을 약하다고 보지 않는데, 한국의 극우세력은 중국을 호구 취급하고 있다. 한국 극우세력의 중국 혐오는 비현실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비정상적 감정이다.<끝>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게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전북의 도전, 문화올림픽에서 하계올림픽까지

전북이 가을 행락철을 맞아 문화·체육·관광 전반에 걸쳐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국제행사과 지역 협력, 관광상품 출시, 제도 개선과 국비 확보에 이르기까지 다각도의 노력이 펼쳐지고 있으며, 이는 도민 등 관광객 모두가 체감할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성과는 '문화올림픽'이라는 큰 비전과 2036 하계올림픽 유치라는 미래 전략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지난 26일부터 한 달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북예술회관 등에서 열리는 제15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전북의 문화적 자력을 세계와 공유하는 장이다. '고요 속의 울림(靜中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1997년 출범 이래 45개국 3,4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하며 국제 문화예술 교류의 대표 무대로 자리매김했다.

같은 기간 완주 고산자연휴양림에서는 전국 최초의 공동 문화도시 프로젝트인 전북권 문화도시 박람회 개최된다. 전주·익산·완주·고창 등 4개 법정 문화도시가 한자리에 모여 각 도시의 정체성을 소개하고 시민 체험과 공연을 선보이며, 개막식에서는 전주 하계올림픽 홍보 영상과 퍼즐 퍼포먼스가 상연됐다. 이는 지역 문화가 단순한 향유 차원을 넘어 국제적 브랜드와 미래 전략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관광 분야에서도 전북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추석을 맞아 도청 로비에서는 전북 관광굿즈 팝업스토어가 열려 관광기념품과 굿즈를 선보이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전북투어패스 글로벌 상품이 출시돼 해외 시장과의 연

결을 본격화했다. 체육 분야 역시 제도와 현상이 동시에 강화되고 있다.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지도자 공개 모집, 표준계약서 도입, 복지포인트 지급 근거 마련 등이 이뤄졌다. 이는 선수와 지도자의 권익 보호와 투명한 운영체계 확립을 목표로 하는 변화다.

문화유산 분야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이어졌다. 전북이 전국 최초로 '국가유산 야행' 사업지에 선정되며 야간 관광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도내 8개소가 선정돼 51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지난 4월 익산을 시작으로 고창과 군산에서 열린 야행에는 이미 11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앞으로 부안, 전주, 남원 등으로 확대되는 야간 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북의 역사·문화 정체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처럼 문화, 관광, 체육, 유산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전북은 새로운 미래를 열고 있다. 이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국제적 위상과 경제적 활력을 동시에 견인하는 전략적 접근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성과가 '문화올림픽'의 비전으로 확장되고 하계올림픽 유치라는 큰 목표와 이어질 때 전북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의 문화·스포츠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도민과 행정, 그리고 지역 기업과 문화예술계가 함께하는 협력의 힘이 지금의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연대와 상생이 이어질 때, 전북은 가을의 풍요를 넘어 사계절 내내 빛나는 문화·체육·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문화재열전



건륭15년명감로탱화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 분류 - 불교회화, 탕화
- 지정일 - 2000년 11월 17일
- 시대 - 조선시대
- 소재지-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박물관

▲오늘의시

강으로 가서 꽃이어 / 김 사 인

이마에 손을 얹고 꽃이어
이마에 여윈 손 얹고 꽃이어
어둡게 흘러가는 강가로 가자
어린 자갈들은 추위에 입술 파랗고
늙은 여귀떼 거친 종아리

강으로 가서 우리는
강으로 가서
다만 강물을 보자
하늘엔 찬 별도 총총하리
시든 풀의 굵은 등엔 서리가 희리

취한 듯 슬픔인 듯 강으로 가서
다만 묵묵히 강물을 보자
이마에 손 얹고 꽃이어

시인 약력 : 1956년 충북 보은 출생. 서울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시절 대학신문에 '戀詩를 위한 이미지 연습', '밤 지내기' 등의 시를 발표했다.

1982년 '시와 경제'에 동인으로 참가하면서 시를 쓰기 시작했다. 이후 시인으로, 평론가로 등단하고 민중문학 진영의 이론가로 활동했다. '한국문학의 현단계'에 평론 '지금 이곳에

서의 시'를 발표했다. 조정환, 박도해와 함께 '노동해방문학'을 창간하고 발행인이 됐다. 1987년 첫 시집 '밤에 쓰는 편지'를 펴냈다.

느리게, 깊이 있게 ,
세상을 만나다

전북타임스신문

https://www.jeonbuktimes.co.kr tel 063)282-9600~9603 fax 282-9604 , 283-8801

남원시, 장애인이 더불어 살기 좋은 도시 추진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민선 8기 장애인복지 증진에 큰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일자리, 차별방지 정책, 인권침해 방지책, 장애인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기 위한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남원'을 만드는데 적극 대응하고 있다.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남원' 만드는 데 다양한 분야 적극 노력

장애인 편의를 위한 노력

남원시는 2022년 구 향교동 행정복지센터(면적 1,090㎡, 지상 3층)를 장애인 어울림센터로 리모델링하여 관내에 흩어져 통합 업무 추진이 어렵던 장애인 단체 8개소, 보장구수리센터 등을 통합 입주시키는 한편 교육장 및 다목적실을 추가 설치하여 장애인단체의 교육, 회의 추진에 편의를 제공했다.

한편 장애인 전동보장구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증가함에 따라, 2023년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제정 및 관내 전동보장구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65세 노인(492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노인 전동보조기기 안심 보험 사업 시행을 통해 2025년 현재 보장금액을 전국 지자체 최고 7,000만원(본인 부담 없음)까지 보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13,371천원의 보험금을 보장했다.

아울러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 및 지원예산을 지속 증대해 왔으며, 2025년 현재 23가구에 83,600천원을 지원하여 등록장애인 가정 내 편의시설, 안전장치, 출입로 등을 설치해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일자리 창출 노력

그동안 남원시는 장애인의 근로를 통한 소득 향상을 위해 장애인일자리사업 5개 사업을 운영하여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대상자는 2023년~2025년까지 12명 증가했다. 현재 총 158명의 장애인이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반형 장애인일자리 참여자는 시청, 행정복지센터, 복지시설, 장애인단체 37개소에 49명, 복지일자리 참여자는 보건지소, 도서관 등 34개소에 76명, 특화형 일자리는 33명이 장기요양기관, 경로당 등에 배치되어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 방지와 각종 돌봄서비스 추진

아울러, 교육, 고용,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차별 방지책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는 2025년 6월, 9월 두 차례 청내 직원 1,524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한층 더 기여했으며,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사업(29명),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3명),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180명), 발달장애인 바우처 서비스(60명) 제공 등 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다양한 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신규시책 추진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신규 시책 도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표

적으로, '남원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를 4월 제정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2026년부터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심한 신장장애인을 대상으로 혈액 및 복막투석비 자부담금의 50%,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 한도 내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향후 투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약을 겪는 신장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 인권 침해 방지 및 지역사회 자립 정책

남원시는 '장애인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범죄 피해 예방 및 수사, 의료기관과의 연계 구축, 법률 자문 및 심리치료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경찰과 정기 합동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 자체 사업으로 재가 여성장애인 CCTV 설치 사업을 시행하여 2020년부터 총 94대를 설치 완료해 성범죄 등에 더욱 취약한 여성장애인 보호에 힘써오고 있다.

장애인 관련 시설에 다양한 지원 추진

남원시 관내에는 총 11개 장애인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이 있으며,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거주 또는 이용 장애인과 종사자가 보다 나은 혜택을 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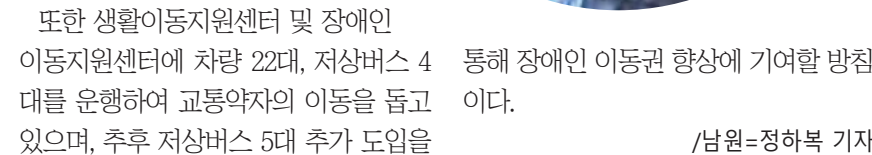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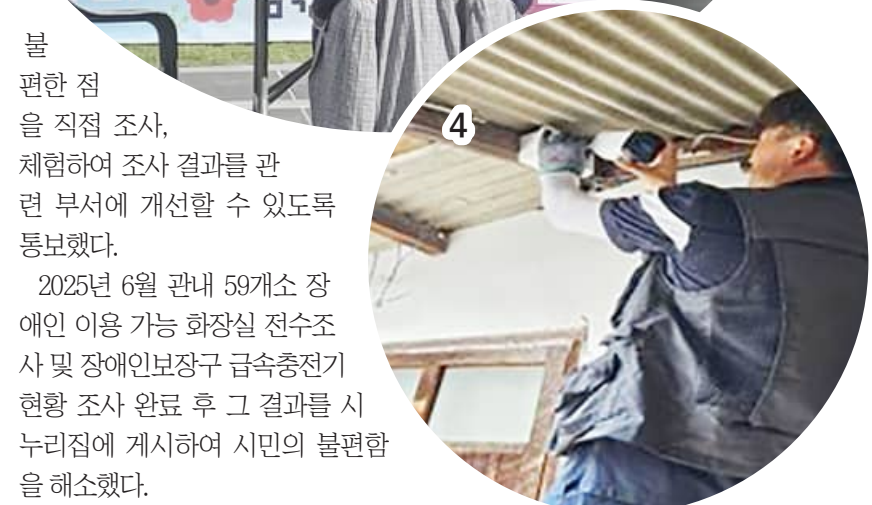
대표적으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평화세상과 평화의 집, 장애인종합복지

관에 2022년 이후 총 279백만원을 들여 기능보강 완료해 시설 거주자 및 이용자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또한 시설 내 종사자의 급여 개선을 위해 2023년부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1개소, 종사자 31명에 인건비 추가지원을 통해 종사자 근로환경을 개선한 바 있으며, 아울러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우리집' 내 다목적 활동실 증축에 국비 2억 6천 6백만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국 138개 신청사업 중 증개축 분야로 전국 유일 선정된 쾌거로 추후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활용에 크게 기여할 예정이다.

장애인에 대한 지역내 장벽 해소

남원시는 각 장애인이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보행환경 체험'을 정례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2024년 시의회 및 2025년 4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민분과 주최로 제95회 춘향제 축제 구간 내 휠체어 및 흰지팡이 보행 체험을 통해 장애인 보행 시



1. 장애인 보행환경체험
2. 장애인의날 기념한마당
3. 수어경연대회
4. 재가여성장애인가구 CCTV설치

세계유산축전

2025

고창의 보물,
자연과 사람을 그린다

10/2-10/22
고창 고인돌·갯벌

2025 WORLD HERITAGE FESTIVAL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최



국가유산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주관



국가유산진흥원



고창군 세계유산보존협의회